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17호
2018. 6. 14
여름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이종찬 편집인:홍성덕
TEL: 02)734-8851 ~2 FAX: 02)722-0251 <http://cafe.daum.net/hongbumdo>

봉오동전투 전승 제98주년 기념 국민대회

일시: 2018. 6. 7(목) 오후 2시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주최: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 남양홍씨남양군파대중중회
후원: 국가보훈처, 광복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봉오동전투 전승98주년 국민대회 성황리에 거행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께 육사 명예졸업장 추서

(사)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찬)에서는 6월 7일(목)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봉오동전투 전승 제98주년을 맞아 기념 국민대회를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윤종오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박유철 광복회장, 정진경 육군사관학교 교장, 김대식 주카자흐스탄 대사 등 250여 명의 귀빈들이 참석하여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사업회와 남양홍씨남양군파대중중회(회장 홍성종)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재향군인회 등의 후원과 해군 홍범도함 승조원들이 참석하여 범국민적인 형식으로 거행되었다.

기념식은 기념사업회 박재옥 국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먼저 문준진 사무총장의 연혁 보고가 있었고, 이종찬 이사장의 기념사가 있었다. 이종찬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단체, 역사학계의 부단한 노력과 ‘독립군과 광복군이 우리 군의 역사적 출발점’이라는 정부의 인식 변화로, 봉오동전투를 비롯한 독립전쟁의 계승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독립운동 단체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종오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의 치사와 박유철 광복회장, 정진경 육사교장, 김대식 카자흐스탄 대사의 축사가 있었고, 조환래 홍범도합 함장의 장군께 드리는 편지를 한현규 중위가 대독했다.

정진경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축사를 통하여 “지난 3월 1일 육사교정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제막했고, 오늘 홍범도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추서함으로써 우리 군은 일제강점기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의 위업과 전통을 계승하여, 호국의 의지로 승화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식전행사로 아트 앙상블 별무리에술단(단장 권도혁)의 신명나는 사물놀이 공연이 있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 군악대의 연주로, 종로 구립합창단이 “날으는 홍범도장군가”와 “독립군가”를 합창하고, 모든 참석자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우렁차게 합창했다. 마지막 식순은 홍성종 남양군파대중중회장의 만세삼창으로 대막을 내렸다.

기 념 사



이 중 찬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우리는 봉오동전투 전승 98주년을 맞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승전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새기고, 홍범도 장군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선시대 지배계층은 양반으로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문반과 무관이 균형

이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지배구조는 문반을 위주로 하고 무반은 소홀히 하여 군사력이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92년 임진왜란을 당하여 7년 동안 국토가 황폐되었지만, 전후에 이에 대한 군사적 대책이 없어 38년 후인 1636년에는 병자호란으로 다시 수난을 당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당시 외적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군의 역할을 전무했고, 결국 경술국치로 일본에 병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수없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과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단합해야만 외부의 침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전투에서 일본 정규군에 비교하여 열세의 병력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을 괴멸시키고 승리를 거두었던 지혜와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봉오동 전승 기념행사의 취지는 그런 정신과 의미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로마와 싸워 유대인들이 전멸했던 마사다 항전 전적지를 아직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민족에게 그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는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98년 전, 만주로 침범했던 일본 정규군은 우리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하여 호기 있게 봉오동 골짜기로 진격했습니다. 이를 대항하여 수적으로나 장비 면에서 열세했던 우리 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의 치밀한 전략과 독립군의 높은 사기, 그리고 유리한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일본군을 무찌르고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일본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

감을 갖게 되었고, 전 국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군의 전통은 1940년 광복군으로 이어졌고, 1948년 대한민국 국군을 창건할 때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후 공산주의자들의 준동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독립운동의 전통이 훼손되었지만, 그 동안 애국지사들과 역사학계의 부단한 노력과 신정부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이 우리 군의 역사적 출발점”이라는 역사인식에 따라 독립전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계승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이 제막되었고, 오늘 정진경 육사교장께서 홍범도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추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독립군, 광복군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새로운 역사의식을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군이 독립군의 위업을 확실하게 이어받겠다는 결의로 평가하여 감사와 더불어,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처절했던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름 없이 헌신한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과 무장독립투쟁에 참여하셨던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땃땃하게 이어받아, 호국의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적인 철칙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재향군인회 회원들과 육사 요원, 해군 홍범도함 승조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은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뒤 의병투쟁과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를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진실이며, 법적·제도적인 규결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신 남양홍씨 종친회 임원 여러분과 이 행사를 후원하신 국가보훈처, 광복회, 재향군인회 임원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군악대 여러분과 ‘필승 홍범도함’ 해군 장병 여러분의 무운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내빈 여러분의 건승과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치사 및 축사



〈윤종오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돌아 보는 계기

만주 항일무장독립운동의 중심에는 홍범도 장군이 계셨습니다. 직접 의병을 일으키고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국권회복을 향한 장군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때 조국 광복을 위해 온 몸을 던지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뜻과 정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유철 광복회장〉

화합과 협력정신으로 평화통일의 역사창조

봉오동전투 당시 아군은 일본군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세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합부대로 편성된 각 지휘관들이 개인의 전공을 앞세우지 않고 화합과 협력을 통해 전투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7일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판문점 선언’을 도출했습니다. 선열들께서 자주독립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셨듯이 하루 빨리 민족공동체를 회복하여 남과 북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과 함께 동북아 번영을 함께 누리는 평화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정진경 육군사관학교 교장〉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전통을 계승

지난 3월 1일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생도들에게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게 하기 위하여 생도들이 사용한 탄피를 녹여서 독립전쟁의 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홍범도 장군께 명예졸업장을 추서한 취지는 장군께서 독립전쟁 중에 보여주신 숭고한 애국심과 위국헌신하는 모습을 군인 본분의 길을 걷고 있는 사관생도들에게 참다운 군인의 귀감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자주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의 전통을 계승하고 국군의 뿌리로 삼겠습니다.



〈김대식 카자흐스탄 대사〉

홍범도 장군의 유해 조국으로 봉환해야

홍범도 장군은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된 10만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처한 암울한 시기에 그들이 망치고 역경을 헤쳐나가는데 투혼의 자양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동포들의 자부심과 용기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홍범도 장군께서 서거하신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국가발전의 모델로 우뚝 선 지금은 장군님을 조국의 품으로 봉환해야 됩니다. 그동안 상황과 인연이 어려웠지만 내년이면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조국의 품으로 모실 때가 되었습니다.

명예졸업장 추서는 홍범도 장군의 위업과 독립운동정신 계승 결의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제막한 것과 더불어 “투철한 애국심과 위국헌신하는 군인 본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관생도들에게 참된 군인의 귀감”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이다.

그 동안 우리 국방당국에는 일제의 식민사관의 폐습이 남아, 독립운동과 무장투쟁 자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범도 장군에게 졸업장을 추서하는 것은, 그 업적과 위업을 계승한다는 결의로 우리 국군의 역사의식에 대한 전환을 가져온 것이며, 가치관의 중대한 변화이다.

우리 국군이 일제 강점기 자주 독립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싸웠던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전통을 계승하고, 국군의 뿌리로 삼겠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것이다.

육군사관학교 정진경 교장은 봉오동전투 전승98주년 기념행사에서 홍범도 장군께 육군사관학교 명예졸업장을 추서했다. 이는 지난 3월 1일 김완태 교장이 육사교정에

기념사업회 임원 일행, 육군사관학교 방문

기념사업회 홍성덕 부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23명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독립전쟁 특

별전시회를 관람하고 생도들의 화랑의식을 참관했다.

이날 임원 일행은 회랑회관에서 김완태 교장의 영접을 받고 오찬을 마친 후 소강당으로 이동하여 육군사관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충무관 앞에 새로 건립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둘러보고 예의를 표했다.

이어서 이상훈 육군박물관 부관장의 해설로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독립전쟁과 신흥무관학교를 소개한 전시자료를 관람하고, 2층에 있는 홍범도 장군실에서 환담을 나눴다.

오후 3시부터는 화랑연병장에서 개최된 1,000여 명 이상의 전교 생도들이 벌이는 씩씩하고 늠름한 분열행사를 참관하고 생도들이 홍범도 장군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결의하는 행사를 지켜보았다.

기념사업회에는 육군사관학교에 위문금으로 1백만 원을 전달했다.



… 봉오동 전승행사 …



〈봉오동전투 전승 행사 국민의례〉



〈별무리 예술단 사물놀이〉



〈육군사관학교 명예졸업장 전수〉



〈홍범도합 승조원〉



〈육군사관학교 군악대〉



〈종로구립합창단〉



〈남양홍씨종친회 회원〉



〈우당장학회 후원회원(애지모)〉

독립운동 후손들이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자



이영철(기념사업회 이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충칭시에 건립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복원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말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본에 국권을 침탈당했던 시기에 나라 없는 슬픔과 설움 속에서 오직 독립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봉오동전투의 영웅 여천 홍범도 장군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보자.

홍범도 장군은 1968년 평안북도 자성에서 태어났으며, 일제 강점기에 활약한 의병장이자 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독립운동가이다.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범도는 의병부대를 만들었고 함경도 산악지대에서 일본군과 싸워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강제 병합하여 대한제국을 멸망시켰다. 홍범도는 이후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을 양성하였고, 1919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 되어 유격전을 이끌었으며 1920년 봉오동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고, 청산리 대첩에서는 김좌진 장군과 연합전선을 펼치며 일본군을 대파시켰다.

이후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세로 독립군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홍범도 장군은 부대를 이끌고 러시아로 건너갔으나 1921년 러시아 공산당이 독립군의 무장을 해제시키면서 독립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많은 독립군들이 목숨을 잃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 이로써 홍범도 장군은 더 이상 독립군을 지휘할 수 없게 되었고,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뒤 광복을 2년 남기고

1943년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제의 강압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잘 받들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우와 국민들의 관심은 어떠한가? 정부는 겨우 명백만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국민들 또한 나와 상관 없는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있어 마음이 씁쓸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제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까지 생활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스럽습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정부의 지원정책은 턱 없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의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 있는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은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에 시선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하여 싸운 독립유공자들이나, 6·25한국전쟁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한 전몰장병에 대하여 무관심한 풍조였다.

새 정부에서 후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들의 헌신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고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아직도 카자흐스탄에 안장되어 있다. 금년으로 홍장군께서 탄생한지 150주년을 맞이하고, 순국한지 75주년을 맞이했다.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상징이며 민족적 자존심이기 때문에 크즐오르다 묘지를 유지하려는 분위기도 있지만, 독립전쟁의 최고의 영웅이며 남북한에서 모두 추모하는 민족 지도자이기 때문에 국내로 봉환해야 될 것이다. 국내로 봉환할 경우, 현지 고려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홍범도 장군의 묘소를 초창지로 공원화하여 고려인들의 민족의식과 동포애를 고양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단장해야 될 것이다.

13도의군도총재(十三道義軍都總裁), 의암 유인석 장군



의암 유인석(柳麟錫)을 일컬어 한말의 대석학이며 거유, 의병장이며 의병대장, 장군, 위정척사(衛正斥邪)운동의 실천자라고 하는 등 문무를 겸비한 그는 그 호칭이 다양하다.

의암은 1842년 강원도 춘천 남면 가정리에서 태어나 세 살에 한문을 쓰는 신동으로 알려졌고 14세에 당대에

명성 높은 유학자 화서 이항로의 문하생이 되었다.

청장년 때에 병인양요와 병자수호조약 등 프랑스와 일본의 외침이 있어서 유학자들은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으로 개화를 반대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 후에 조선왕조의 문물제도를 서양식으로 바꾸는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국모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게 시해를 당해 울분하던 차에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이 내리자, 전국 곳곳에서 분노한 유생들이 의병을 모아 봉기하였다. 1893년 51세의 의암은 제천으로 이사를 하여 의병활동을 하다가 의병대장으로 지휘를 하였고, 활동이 잠시 주춤하자 중국으로 망명 후 제천에 왔다가 다시 67세에 러시아와 중국으로 옮겨 74세 되던 해에 별세하였다.

유인석의 자(字)는 여성(汝聖)이고 흥범도의 호는 여천(汝千)이다.

흥범도의 호 여천을 유인석이 자기의 자를 따라 지어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흥범도 보다 28세 연상이며 당대 거유, 대석학인 의암은 1895년부터 충북 제천에서 거의(擧義)하여 영월·원주에서 의병활동을 했고, 1896년 의병장으로 활동하다가 동년 6월 10일 서북 행을 한다. 통화현에 정착하는 중 1897년 3월 고종황제의 소명으로 일시 귀국했다가 서간도로 망명한다.

1905년 10월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일제의 침략 야욕이 노골화되자 의암은 60여 세의 노구를 이끌고 전국 유림에 통문을 돌려 비록 병토(兵討)는 못할지라도 언토(言討)·의토(義討)라도 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백인

해(白仁海)·전용제(全庸濟)를 청에 파견하여 원세개(袁世凱)에게 지원을 요청했으나 성사치 못했다.

1905년부터 1908년 일제에 대항하여 의병활동을 격문으로 독려하다가 동년 7월에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겼고 1910년 6월 21일 13도의군도총재를 맡았으며, 흥범도는 지휘부인 도총소의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의 비보가 전해지자 유인석은 즉시 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함께 ‘적의 죄를 성토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밝힌다’라는 뜻의 성명회(聲明會)를 조직했다. 그리고 일제와의 결사항전을 촉구하는 격문을 발표하고, 병합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한민족 독립에 대한 결의와 전 세계의 지지와 후원을 호소하는 <성명회 선언서>를 작성하고, 이 선언서를 영어와 불어로 번역해 서방의 여러 국가에 발송하기도 했다. 이때 유인석은 스스로 한국민의 대표가 되어 서명했다.

흥범도가 의암을 처음 만난 시기는 정확치 않으나 철원, 원주 등지에서 활동한 189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의암과 연령차·신분 차이는 있었지만 흥범도의 범상치 않은 전략전술을 인정하고 의형제 같이 ‘여성’, ‘여천’으로 호칭하고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의암의 흥범도앞 서한에 ‘여천’이라고 표기)

의암은 외국 망명 중에도 유학(儒學)을 계속하여 <우주문답>, <한등만필> 등을 저술하고 많은 격문을 써서 서거 2년 후 문인들이 <의암집>을 간행하였다. 20년 후인 1935년에 고향인 가정리에 묘소를 이장하고,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받았다.

2000년에는 유인석 묘역을 강원도기념물 제74호로 지정하였다. 2001년 의암학회를 창립하여 장군의 학문과 사상, 항일투쟁사를 연구하며 선양을 하고 있다.

춘천에서 출생하고 춘천에 시신을 안장한 춘천의 인물이지만, 충북 제천시에서는 의병활동의 본거지가 제천이라 하여 매년 9월에는 ‘의병제’를 크게 지내며 제천 인물사(人物史)에 유인석 의병장으로 명기하고 있다.

(정리: 홍성덕 부이사장)

…임원동정…

○이종찬 이사장



국립 대한민국의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99주년을 맞아 6월 1일과 2일,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백년의 약속”을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음악회에서는 광복군 출신 작곡가 한유한, 정율성이 작곡한 “구름과 바람이 되어”라는 오페라를 공연했다. 오는 6월 18일에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재연한다.

○홍성덕 부이사장



21세기경영인클럽 고문은 6월 15일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 홀에서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정부기념관 건립 취지에 대한 월례 조찬강연을 주관한다.

○김유진 고문



4·19혁명유공자회 상임이사는 4월 19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4·19혁명을 세계4대혁명에 포함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고, 회원 1천여 명이 세종로까지 행진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서명했다고 한다.

○이우재 고문



(사)매한윤봉길월진회 이사장은 4월 28~29일 예산군 덕산면 충의사와 윤봉길 의사 생가에서 제 45회 윤봉길 평화축제를 개최했다. 28일에는 도중도 주무대에서 “내가 윤봉길이다”라는 뮤지컬을 공연했다.

○홍헌일 감사



서서울향토문화연구원장은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은평구청 회의실 등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개최하는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과정에서 이론을 강의하고 답사를 지도한다.

○김경호 이사



대구광역시 자문대사는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아브둑하키모프 부총리 및 바바예프 사마르칸트주 부지사 등을 면담하고 대구시와 우즈베키스탄 간의 교류와 협력문제를 협의했다.

한편 우즈베크 국립예술대 아미노프 총장은 김대사에게 우즈베크와 한국대학 간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미자 이사



종로구의회 건설복지분과위원장은 6·13 지방선거에 종로구 라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 후보(2-나)로 구의원에 출마했다.

○이영철 이사



도봉문화원 원장은 5월 28일 제7대 도봉문화원 원장으로 재선되었다. 6월 2일에는 도봉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도봉문화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4차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다.

○홍성중 이사



남양홍씨남양군파대종중회 회장은 4월 22일 대전 세덕사와 5월 13일 옥천 모덕사에서 각각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선조 춘계추모제를 주관하였다.

○홍이표 이사



애지모 회장은 6월 9일 오후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컨벤션 홀에서 애지모 하이리빙 홍앤리그룹에서 주관하는 “제9차 애국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소비자 모임 페스티벌”을 주관했다. 축제에서는 회원들이 활동한 사회공헌, 봉사, 건강분야, 교육분야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 이종찬 이사장, 홍성덕 부이사장, 황원섭 이사가 동참했다.

○홍재구 이사



(사)당성사적보존회 이사장은 5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당성사적지 안에 있는 당성사적비 보수현장에서 보존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사적비 준공식을 개최했다.

○황원섭 이사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6월 8일 오후 육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신흥무관학교 개교107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육사 생도 전원이 참석했고, 이어서 강당에서 향일음악회를 개최했다. 5월 29일에는 동아일보에 “독립전쟁기념관을 건립하자”는 기고문이 게재했다.

○문준진 사무총장



지난 4월에 극동러시아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3차례 방문하고, 극동연방 문화부 장관과 철도청장, 연해주 주지사 등과 카지노, 호텔, 골프장, 주택건설에 관련된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했다.